

國軍의 越南派兵과 그 影響

朴 俊 英
〈梨花女大助教授〉

一、序 言

1960年代에 이루어진 韓國의 對外政策中 가장 회
기적이며 극적인 것은 역시 國軍의 越南參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특히 현재 韓國의 外交史上 처음으로
이루어진 해외지역에서의 韓國軍參戰이었고, 더 나아가
韓・美相互防衛條約으로 同盟關係에 놓여 있는 韓・美관
계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하였다. 美國의 對아시아
정책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越南戰爭은 이제 이미 지나간
歷史의 한 장이 되었음에 비추어 韓國의 越南參戰이 한
國의 國가정책 전반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봄으로써 韓・
美間 1945年 이후 定立되어 온 韓・美關係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고자
한다.

二、越南參戰

가, 派越경위

韓國의 월남참전은 근본적으로 우방 미국의 요청에 의
해서 이루어진 해외파병事例였다. 1964年 7月 美
국무성 극동담당 차관보였던 「윌리엄 번디」가 來韓하여
처음으로 韓國軍의 월남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해 왔
다. 이에 따라 同年 9月에는 越南政府가 韓國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보내어 왔고, 韓國은 이 요
청을 수락하여 陸軍 제1이동외과병원과 陸軍대전도교관

단을 월남에 파견하게 되었는데, 이등의과병원은 130명, 태권도 교관단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소규모 지원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陸軍 이등의과병원은 월남에 도착한 후 월남군인 및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진료에 임했고, 태권도 교관단은 월남군인, 민간인, 그리고 청년층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 이 당시 한국군 파월팀은 소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한국군 월남 참전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선발대의 성격을 지니었고, 젊은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은, 베트남이越南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려 가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자기 방어 기술을 습득시켜 줌으로써 베트남의 강제 징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同年 12月에는 당시 「브라운」駐韓美國大使가 韓國軍의 월남 지원을 확대해 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존슨」美대통령 親書를 韓國政府에 전달하였다. 「존슨」대통령은 이 친서에서 한국군 월남지원에 따르는 제반비용, 즉 작전비 및 운송유지비 그리고 해외수당等を美國側에서 부담할 뜻을 비쳤고, 덧붙여 駐韓美軍의 감축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韓國政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결정시킬 것도 아울러 약속하였다.

한편 駐韓美軍當局도 1966年度分으로 계획되어 있

던 美軍事援助額節約方案을 보유하여 본래 액수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 그런데 이 군사원조액 절약 방안이라는 것은 1964년부터 시도되었던 것으로서, 한국의 經濟成長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군維持에 필요한 사항중 한국측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美군사원조액中에서 제외하여 미국의 對韓 軍원액을 절약해 보려는 方案이었다. 당시 계획된 實際節約 액수를 살펴 보면, 1965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동안 總 1억 弗에 해당하는 군원액을 한국측으로 이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국의 월남 지원책으로써 1965年 1月 한국政府가 월남에 2,000여명의 陸軍진설공병단을 파견하는 法案을國會에 제출하였을 때, 野黨議員을 中心으로, 한국軍 월남派兵에 관한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당시 야당內 重鎮政治人들은 월남파병이 北韓의 戰爭 도발가능성에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처음에는 소규모 한국軍 파월로 시작되지만 추후 전장을 수 없는 규모의 한국軍을 월남에 파견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國會는 진설공병단의 월남파병과 관련하여 정부측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는데, 당시 外務部長官 李東元, 國防部長官 金聖恩 그리고 申尙澈駐越韓國大使 등이 나와 월

남事態에 관한 현황과北韓의 도발 가능성에 관련해서 각기의견을開陳하였다. 소규모의 非전투부대인 건설공병단을 派越하는 것으로는 특별히 北韓을 자극하지 않으리라는 판단과 美國과 韓國이 맺고 있는 相互防衛體制의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요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얻게 되자, 다음해인 1965년 1月 國會는 드디어 韓國건설공병단의 월남파병을 가결하게 되었다.

1965년 2月 비둘기部隊로 命名된 2,000여명의 韓國軍 건설공병단이 구성되고, 曹文煥 准將의 지휘로 월남파병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었다. 비둘기부대는 부대임무가 전투가 아닌 건설, 즉 평화적 임무에 종사한다는 의미에서 비둘기라는 평화의 상징을 부대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월남에 도착해서는 주로 도로 건설 및 보수 그리고 학교, 병원등을 건축하는 평화적 건설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65년 4月에는 美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해리만」보좌관이 來韓하게 되었다. 그는 이때 월남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韓國軍 전투부대의 파월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 이어 다음 달인 同年 5月에는 韓國의 朴正熙대통령이 미국을 親善訪問하게 되었고, 이때 「존슨」 美대통령은 朴正熙 대통령과 韓國軍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의 필요성에 대해 論議했었다. 위와 같은 美側の 韓國軍 전투부대 월남파병 중용 움직임에 발 맞추어, 월

남의 「구엔 카오 키」首相이 同年 6月에 公式으로 韓國政府에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을 요청하는 書翰을 보내어 왔고, 韓國政府는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이라는 문제에 대해 심자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첫째는 韓國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이 韓國의 安保라는 차원에서 否定的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고, 둘째는 만일 韓國軍이 월남戰에 참전하게 된다면 韓國軍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韓國軍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은 韓國 安保上 均衡을 잃지 않는 범위內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과 한편, 韓國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의 代役으로 韓國軍의 월남전선 駐屯이 요청된다는 美軍側의 뜻이 간접적으로 示唆되었을 때 韓國側은 전투부대의 파월도 피할 수 없는 미국의 요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로 깨닫게 되었다. 만일 韓國이 전투부대의 파월을 거절하게 된다면 美側은 부득이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 2個師團中 全部 또는 一部를 월남戰線으로 轉用, 전투에 임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論理를 내세우자, 韓國은 더더구나 美側의 월남파병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韓國은 美軍의 韓國駐屯이 北韓의 침략을 저지해 주는 막대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중시하여 美軍의 韓國주둔 대신에 韓國軍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韓國은

6·25戰爭을 통해서 한국의 防衛를 위해 피를 흘려준 友邦 미국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시아地域에서 공산당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友邦 미국과 越南戰에서 공동으로 싸움으로써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입각한 동맹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한국정부는 한국軍 正規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을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1965年 10月 約 5,000名에 달하는 海兵 第2旅團이 李鳳出准將의 지휘하에 靑龍이라는 부대명을 앞세우고 전투부대 파병의 선봉을 서게 되었던 것이다. 청룡부대는 한국軍 해병中에서도 막강한 전투기량을 보유한 精銳 해병부대로 구성되어, 당시 월남 「캄란」지역에 배치되었고, 이 지역의 전투 및 경비인무를 담당하게 되어 이地域에 함께 주둔하고 있던 美특전부대의 전투인원에 협조하게 되었다. 청룡부대와 함께 陸軍 15,000餘名으로 구성된 師團이 맹호부대라는 명칭으로 역시 월남으로 향했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 蔡命新少將이 지휘하던 육군 맹호사단이었고, 蔡 소장은 駐越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여 駐越韓國軍司令官職도 겸임하게 되었다.

맹호부대는 月南 中部 「귀논」지역에 배치되어 베트남 平定작전에 임하게 되었고 탐색 및 수색 그리고 베트남 格렬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1966年 2月 越南政府는 한국軍 전투부대의 효과적이며 탁월한 전투 및 평정업무에 감명을 받고 再次 전투부대의 추가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국軍 전투부대의 추가파병을 둘러싸고 美國은 「험프리」副統領을 1966年 1月과 2月 두차례에 걸쳐 한국에 파견하여 韓國政府와 긴밀한 협의의를 피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정부는 1966年初에 한국軍 전투부대의 추가파병에 대해서 國會에 法案을 제출하였는데, 이때는 與·野 兩側에서 많은 議員들이 점증하는 한국軍 전투부대의 月남파병을 심히 우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한국 正規 전투부대中 優秀部隊들이 대거 月남전투에 파병되어 해외에 駐屯하게 되자, 南韓은 北韓과 대치하고 있는 軍事力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고, 일반 國民들도 얼마나 많은 精銳 한국軍 전투부대가 月남으로 향하게 될는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韓國側이 1個師團규모의 추가 전투부대 파병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月남駐屯 한국軍의 규모는 約 50,000名에 이르는 병력이 되어, 總 한국軍의 1할에 해당하는兵力이 외국에 駐屯하게 되며, 한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美병력의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軍兵力中 가장 精銳라고 생각되는 部隊를 月남에 파병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의

總兵力中 최고 수준의 전투부대를 1할이나 해외에 파견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은 한국軍 全兵力과 한국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 兵士들을 합쳐 놓았을 때, 韓國戰爭 이후 계속 軍備 증강을 강화해 온 북한側 군사력과 平衡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더더구나 중대한 安保上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은 호시탐탐 南侵의 好機를 엿보고 있었고 이를 위해 오직 군사력강화에 전 힘을 기울여 왔으므로 남한側 군사력中 지나친 비중의 규모가 월남에 파병되는 것은 아무래도 不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추가로 전투부대를 파월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韓國軍中 어느 규모의 파병이 한국의 安保를 해치지 않는 범위로서 적정규모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군 전투부대의 추가 월남파병이 한국의 안보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북한側이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1966年 당시 서울에 도착한 「험프리」 副統領은 한국방위에 대한 美國의 확고한 방위 決意를 재삼 확인해 줌으로써 만일 北韓 등 외부세력이 南韓을 침략했을 때는 美國이 즉시 參戰, 한국방위에 철저를 기하게 될 것을 그의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闡明하기에 이르렀다.

『美國과 美國人은 한국방위에 대한 決意가 확고하니

다. 한국땅에 한 사람의 美軍이 駐屯하고 있다라고 그것은 美國의 모든 國民이 한국방위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국의 방위력은 韓國과 美國의 國力を 합쳐 놓은 것과 같고, 한편 美國의 방위력 역시 한국과 美國의 國力を 합쳐 놓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은 友邦이며 친구이므로 상호 방위체제에 관한 한 조금도 우려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험프리」 副統領의 상기 연설은 한국의 與・野 정치지도자들에게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결의가 확고함을 명백히 주지시켜 주었고, 共產國家의 침략의도를 저지하겠다는 공동목표에 대해 재삼 확인해 줌으로써 한국軍 추가파병에 대한 한국側 우려를 크게 완화시켜 주었다.

한편 당시 한국 國會는 1965년도 여름에 조인된 韓・日國交正常化條約의 비준문제를 둘러 싸고 야당側을 주축으로 해서 院外에서 극한적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한국軍 월남 추가 파병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둘릴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전투부대 추가 파병에 대한 야당側 인사들의 반대 의사 표명이 미미했던 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월남파병자체가 한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友邦 미국側의 종용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野黨系 政治人들은 당시 美國의 東南亞政策의 일환인 越南戰 수행이라는

美國의 정책노선에 직접적으로 반대함으로써, 韓國內에서 政權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정치적 支持를 상실하게 될까 염려하는 점에서도 비롯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야당계 정치인들은 政權의 引受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더우기 미국側 支持를 상실하게 될 경우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야당정치인들은 日本을 대상으로 한 韓·日 國交正常化條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여 결기대회 등으로 각종 院外투쟁을 벌이는 일에 專力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國會內 討議는 주로 야당계 議員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월남추가파병案에 關連해서 미국側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面에 역점을 두고, 韓國軍 兵士에 대한 대우 및 기타 월남전 수행에 필요한 軍需物資 納品에 더 큰 몫을 차지함으로써 당시 추진되고 있던 韓國 經濟發展에 拍車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1966年 3月 韓國軍 전투부대 추가 월남파병에 關連해서 「브라운」駐韓美國大使가 特別議定書를 韓國側에 전달했는데 이것이 그 후 「브라운 覺書」로 통하는 유명한 文書였다. 「브라운 각서」는 韓國 전투부대의 추가파병과 關連하여 美側이 韓國 안보태세 및 경제 발전을 위하여 취하게 될 제반사항에 關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였는데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미국은 韓國軍現代化

를 위하여 최신裝備 및 對間諜裝備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韓國側의 자체 방위능력을 고양키 위해 防衛産業體 建設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이며, 1964年 부터 실시되어 온 美軍사원조절약方案도 그 실시를 보류할 뿐만 아니라 美國의 對韓軍援을 추가로 1억 5천만弗 증액 할당해 줄 것도 아울러 알려 왔다. 韓國軍 추가 파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美側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월남戰 수행에 필요한 美軍 군수물자 納品에도 최대한 韓國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브라운 각서」에 의한 美側의 약속들은 韓國軍現代化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面에 있어서 時期的으로 다소 지체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착실히 진행되어 韓國의 경제발전 및 안보태세 강화에 多大한 기여를 하기에 이르렀다.

1966年 3月 韓國國會는 韓國軍 전투부대 추가 파병에 關한 法案을 가결하게 되었고, 同年 6月 韓國軍 전투부대의 월남파병 第2陣이 육군백마사단, 그리고 맹호사단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증원되는 1個聯隊를 합쳐 월남으로 향하게 되었고, 월남에 파견된 韓國軍 總兵力은 47, 872名에 이르게 되었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韓國軍 월남 파견부대는 陸軍의 맹호, 백마 등 2個師團과 건설공병단인 비둘기부대, 그리고 海兵旅團인 청룡부대로 구성되어 월남전선에서 전투 및 민간경제活動

양면으로 활약하게 되었던 것이다.

1970年代 初에 들어 서자 「닉슨」 美大統領은 월남에서 美軍의 개입이 지나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월남인에 의한 전투로 전향시키기 위한 월남戰 월남化 계획이 추진되기에 이르렀고 한국側도 이에 부응해서 월남戰에서의 점차적 철수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971年 한국정부는 월남으로 부터 10,000여명에 달하는 한국군을 제1단계로 철수하게 되었고, 이어서 美側에 의해 추진되어 온 「파리平和會談」이 결실을 맺게 된 1973年 1월에 韓國政府는 越南에 파견되어 있는 韓國軍全部를 무사히 귀환시켜 現代 韓國歷史에 획기적 章을 이루었던 월남전 參戰記錄이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나. 파월등기

越南派兵을 가능하게 해 준 정치적 환경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정부 및 한국 정치지도자들은 월남파병을 원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韓國安保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美國과의 同盟關係를 더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韓國軍의 월남파병은 韓・美同盟強化라는 면에서 제일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도 美國의 보호를 받는 韓國의 입장에 서 한국軍을 파병할 수 있는 兵力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

었는데 그것은 韓國의 對北韓安保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병규모가 이루어 졌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월남파병으로 인해 당시 추구하고 있던 韓國經濟發展에도 制動이 걸려서는 안 되겠다는 국가적 意志가 있었으나 이는 월남파병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의 安保狀況面에만 관련시켜 파병규모를 고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經濟的 利益이라는 면은 애초 派兵을 고려할 때에는 크게 부각되거나 인식되지 않았던 要素이었으므로 한국의 월남파병이 순전히 經濟的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월남파병과 관련되어 얻게 된 經濟的인 利益은 韓國이 월남戰에 參戰한 이후 서서히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인식되거나 動機로 등장하기에는 너무나 안보적 차원에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의 越南參戰에 관련되는 動機를 정리하면 첫째, 미국側의 중용, 둘째, 友邦 美國과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非共產圈 國家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려는 한국側의 욕망, 셋째, 한국동란時 友邦國에 대한 정치군사적 빛에 대한 보상, 넷째, 越南參戰으로 얻어질 수 있는 經濟的 利益에 대한 고려, 끝으로 國際社會에서의 한국 國家威信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겠다.

三、韓國安保에 미친 영향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월남파병 이후 한국은 물론 북한의 動態에 관심을 쓰고 있었다. 북한은 1960년대末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初까지 한국에 대한 各種 도발을 자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미국側に 대한 직접적 도전도 서슴치 않게 되었다. 南·北韓이 대치하고 있는 38線을 경계로 한 휴전선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挑發件數를 年度別로 비교하여 보면 1965년과 1966년에 북한側에 의한 무력도발이 각각 88件과 80件이던 것이 1967년과 1968년에는 그 도발件數가 경총 뛰어서 784件과 985件으로 무려 10배가 넘는 도발件數를 기록하였다.

北韓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 國民의 대다수를 감작 놀라게 한 武裝間諜團을 침투시켜 서울한복판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습격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1968年 1月 北韓 武裝間諜 31名으로 조직된 간첩단이 美軍側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휴전선 지역으로 침투하여 서울로 날달았고 대통령 관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종로 경찰서장의 저지에서의 해서 대통령관저에서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북

한의 암살기도가 霧散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崔圭植종로 경찰서장은 현장에서 순직하였고 북한 무장간첩 31名中 김신조 한사람만 생포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살되었다. 김신조는 그후 남한으로 전향하여 오늘날에는 작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다북한 가정생활을 편안히 영위하고 있다.

북한무장간첩단의 대통령 암살기도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 특히 북한 무장간첩 31名이나 되는 숫자가 무난히 휴전선을 넘어 올 수 있었다는 사실과 김신조가 생포된 후 심문에서 밝힌 사실로서 북한은 약 5만여명에 달하는 특수부대 무장간첩단을 양성중에 있고, 월남에서와 같은 게릴라전을 남한에서 추진하고자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었다.

北韓에 의한 두번째 커다란 도발사건은 1968年 1월에 일어난 北韓海軍에 의한 美國情報艦「푸에블로」號의 남치사건이었다. 美海軍 정보함「푸에블로」號는 韓國東海의 公海上을 항진중에 있었으나 北韓은「푸에블로」號가 북한의 領海를 침범,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는 명분하에 강제로 나포, 북한으로 남치해 갔던 것이다. 美海軍 艦艇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美側의 自制와 타협정신으로 約 11년간에 걸친 美側과 북한間의 비밀교섭을 거쳐 船長을 비롯해서 船員들은 무사히 美側으로 인도歸還될 수 있었다.

이어서北韓은 1969年 4月 다시 세번째 도발을 자행했는데 이번에는美國偵察機「EC-121」이 북한의砲사격에 의해 격추된 사건이었다. 동시에北韓은 또 다시南韓地域에 대해 대규모 무장간첩단을 南侵시킴으로써 잔인한 도발행위를 자행하였다. 東海岸 蔚珍·三陟에 200名이 넘는北韓의 무장공비가 출현하여 월남戰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종류의 인민재판을 시도했고, 남한의 춘라지역에서 계림라戰을 벌일 수 있도록 획책하였다. 올진·삼척 등 해안지방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들은 인근 산간촌락을 점령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도록 농민들을 선동하였으나 反共精神이 투철한 남한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軍·官·民 合同搜索作戰에서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이르렀다. 1970年代로 들어서서는北韓의美國과韓國에 대한 도발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한마디로 북한에 의한 도발 행위들은 남한주민들로 부터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남한주민들이韓國戰爭 이후 접해온 民主主義 체제와 이념에 호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명백한 증거로는 남한국민들은 근본적 생활자세에서 反共思想이 투철하여 共產主義라면 거의 반사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우기韓國戰爭을 거치면서 남한국민들이 경험했던北韓 共產主義者들의 잔악하고 무자비했던 학살행위등 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이번 동해안地域에 침투한 북한 무장간첩들이 良民을 또 다시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보이자韓國戰爭 당시의 악몽이 되살아 났고北韓 共產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더 한층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經濟的인 측면에서도 1960年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기틀을 잡기 시작한韓國經濟의 괄목할만한發展은 1970年代初에 이르러 더 한층 拍車를 가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現 정치·경제체제內에서 노력하여 자신들의 成功을 도모해 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北韓의 남한침투 기도는 남한지역에서 政治的 효과를 조금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60年代末北韓의 도발이 갑자기 증가했던 사실을 당시 북한이 越盟의 투쟁을 간접적으로 도와 주기 위해南韓에 대한 도발을 增加시킴으로써 한국과 월남에서 전쟁임부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解釋하기도 했으나, 북한側 도발이 남한국민으로부터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하자,北韓이 도발행위를 현저히 감소시킨 점으로 미루어 볼때, 越盟側을 위한 간접적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북한자신의 政治的 目的, 즉 統一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계림라戰을 시도해 보려는 의도로써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韓國政府는 월남戰의 參戰渦中에서 美國의 아시

아地域 방위 태세에 변화가 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고, 특히 1969年 구암에서 발표된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各友邦國으로 하여금 자체적 방위능력을 갖추도록 자극해 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對內的으로는 새로이 豫備軍을 창설하여 軍·警과 함께 민간인이 有事時 지역방위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對外的으로는 「닉슨 독트린」에 具現된 精神에 입각하여 아시아地域에서의 非共產國家間에 특히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國家間에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地域協力機構의 창설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地域 非共產國家間의 공동방위를 논의하기 위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7회에 걸쳐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地域 閣僚회의」가 그 하나였고, 1968年 10月 필리핀 首都 「마닐라」에서 개최된 월남참전 7個國 원수가 참석한 「마닐라 頂上會談」이 그 두번째였다.

「마닐라 頂上會談」은 한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개최된 會議였고 월남 참전국가들 間에 효과적으로 공동전쟁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참전국가간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때 채택된 공동성명서에서 월남戰 참전국들은 越南에 民主政府 수립이 가능하도록 월남의 독립과 주권을 방위할 것을 다짐했고 부가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非共產系 국가상

호간 공산침략에 대비하여 상호 협조할 것을 표명하게 되었다. 한국의 朴正熙대통령은 월남戰에서의 전투가 한국戰線의 연장인 第2戰線으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越南에서 共產主義의 침략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參戰國 相互 間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韓國側은 월남 참전국가에 安保의 次元에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는 地域協議體나 機構를 창설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1970年代初로 들어서면서 미국이 越南戰의 越南化라든가 파리의 平和會議을 통해 월맹側과 타협점을 발견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참전국 상호 안보체제라는가 아시아 태평양地域 非共產國家間 안보체제들의 제의는 자연히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四、韓國의 經濟發展에 미친 영향

韓國이 월남파병을 계기로 얻게된 경제적 이익은 상당한量에 달하였다. 월남참전 初期에는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는 安保體制에 미친 영향을 주로 고려하였으나 派兵이 결정되어 진행해 가면서 또 派兵의 규모가 점차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越南派兵과 관련하여서 상당한經濟的利益을 획득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越南派兵과 관련하여서 초래된 국가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은 주로 美國 차관의 증액, 美軍원액 절약方案의 실시

중지, 越南駐屯 韓國軍 및 美軍에 대한 용역 및 납품관계 그리고 월남에 주둔한 한국군인 및 민간인에 의한 송금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韓國人이 가장 많이 월남戰에 참여되어 있을 때에는 韓國軍人이 約 50,000名에 이르렀고 民間 技術者 및 勤勞者들의 숫자가 約 23,000名에 달하였다. 한국군인들에게는 급료로써 전쟁수당이나 해외수당등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民間用役部門에서는 군수물자 납품, 건설 및 교통부문에 용역이 이루어졌다.

1965年末부터 韓國의 越南參戰이 전투임무로 확대되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자 韓國政府는 월남戰 수행에 관련하여 획득할 수 있는 經濟的 기회를 극대화해줄 것을 美側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인근 日本은 군사적인 面에서는 美國의 越南政策에 조금도 기여함이 없이 때때로는 미국의 월남정책 수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도 실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量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韓國과의 월남에 美군수물자 납품 참여비용을 비교해 보면 10:1에 이르고 있었다.

어쨌든 韓國도 상당액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美군수물자 납품 및 용역담당부문에서 차지하게 되었는데 한국側은 주로 구두 군복, 철관등을 납품하였고, 또한 경제 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韓・越經濟協會를 조직하여 월남市場에 한국의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하였다.

이런 韓國政府의 노력은 점차 효과를 보이기 시작해서 월남市場에서 한국의 수출상품이 증가일로에 있었고 한국會社들도 전쟁에 관련된 건축이나 교통·통신 분야의 사업에 점차로 많은 量을 受注하게 되었다. 한편 韓國人 기술자와 근로자도 外國人會社나 또는 국제경영입찰에 참여하게 된 韓國人會社의 고용인으로써 대거 월남市場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越南에 진출 근무하게 된 韓國人들은 군인이거나 민간기술자, 근로자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고국으로 송금하는比率이 극히 높았는데, 예를 들면 월남에 있는 韓國人들은 그들 수입의 約 80% 이상을 모두 韓國의 銀行으로 송금하는 기록을 보여서 한국인들의 근면, 검약한 정신 및 저축하는 습관을 생생히 보여 주곤 하였다.

이렇게 한국으로 송금된 外貨는 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에 필요한 外資에 상당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1966年度에 한국으로 송금된 외화는 군인 및 민간부문을 합쳐서 4천3백만弗에 이르렀고, 당해년도 민간부문의 외 송수입액의 約 1/4이나 차지하였으며, 같은 해 월남시장으로 수출한 한국 상품 및 용역은 3천6백만弗에 이르러서 당해년도 총수출액의 約 8%에 이르렀다. 이어서 1967년에는 민간 및 군인부문을 모두 합쳐서 월남참전에 관련하여 획득한 총경제적 이익이 그 前年度

에 비해 두배가 넘는 總 1억3천5만弗에 이르렀고 1968년에는 더욱 증가되어 1억8천만弗에 이르렀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월남참전에 관련되어 얻어진 외화총액은 모두 5억4천6백만弗이 되었으며, 1965년부터 計上해서 1973년 철수時까지 한국이 월남에 참전하여 획득한 총 수입액은 약 10억弗에 달하게 되었다.

이 자금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계획되었던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완수에 소요되는 외자의 총당에 커다란 몫을 해주었고, 이 기간동안에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은 평균 8·5%이었는데, 월남전쟁기에 힘입어 실제 년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12%에 육박했고 세계적 수준으로 보아도 최고의 경제성장기록을 보임으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달성케 되었다.

전체적으로 월남전과병에 관련해서 한국이 획득하게 된 총收入額 10억弗이란 財源은 실로 1965年度 한·일 국교정상화조약의 타결에 따라 한국市場으로 흘러들어 오게 되었던 總 8억弗의 日本資本보다 2억불이나 많은 액수가 되었던 것이다.

五. 한국의교자세에 미친 영향

韓國軍이 멀리 월남에까지 파견되어 友邦인 美軍의 전

정임무 수행에 한팔이 되어 월남전투의 일익을 담당하고 한편으로는 민간 평정활동에도 관여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韓國人의 사기진작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韓國人들은 특히 友邦인 美國이 韓國戰爭에서 보여준 방위협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월남戰에서 韓國이 차지하는 同盟國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사실에 대단한 긍지와 자랑을 느낄 수 있었다. 韓·美同盟體制에서 보호받은 입장에만 있었던 韓國이 전쟁터에서 美國과 협조를 통해 한·미동맹체제에 명실공히 韓國의 유용가치를 증명함으로써 한·미동맹체제의 강화를 기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越南에 參戰하고 있는 非共產國家間에 공산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안보체제를 주창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마닐라 頂上會談」에서는 韓國側이 능동적이고 진지한 外交活動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韓國의 越南參戰이란 한국의 현대사에서, 특히 한·미상호방위체제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韓國의 越南參戰을 계기로 계속해서 원조를 받아야만 생존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초라한 韓國의 同僚아시아國家인 越南을 도울 수 있는 存在로 변천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韓國이 越南參戰으로 인해 얻게 된 심리적 효과中에는 韓國이 한·미동맹체제에서 효과적이며

할을 해냄으로써 美國에 더욱 필요한 友邦同盟國으로 부상되었고 또한 韓國의 국위선양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韓國軍의 월남참전에 관련해서 韓國의 외교활동면에 주는 부정적인 효과로 간주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韓國軍이 월남전투에서 잔인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國際輿論이었고, 다른 하나는 韓國이 美國의 對 아시아政策인 월남戰에 너무 깊숙히 관여되어 있음으로 해서 國際政治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하고 있는 非同盟諸國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韓國國民들은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國軍의 용맹성과 국군이 美軍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훌륭히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禁할 수 없었다.

越南에 派兵된 韓國軍은 전투뿐만이 아니라 민간지역 평정활동에도 훌륭한 솜씨를 보여 韓國軍이 駐屯한 지역에서는 베트콩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 들곤 하였다. 예를 들면 1966年 3月 1日 越南의 한 전투에서 韓國軍은 越盟베트콩을 1, 175名이나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軍側 사상자 數는 오직 74名에 불과하는 戰果를 기록하였다.

韓國軍은 월남참전기간 동안에 約 5, 000名에 달

하는 死傷者를 냈는데 이는 월남참전 韓國軍 總 숫자인 50, 000名에 비하여 約 1할에 해당하는 數로써 死傷者 비율이 상당히 양호한 편에 든다고 하겠다.

월남전투에 임하고 있는 韓國軍 兵士들은 美軍하고 달리 베트콩의 심벌작전에서 더 적극적이었고 특히 근접전에서 승치 않고 뛰어 드는 용감성을 보여 주곤 하였다. 美國 兵士들은 베트콩을 발견하게 되면 우선 멀리 떨어져서 베트콩위치에 대한 空襲을 요청하곤 했는데 반해서 韓國軍은 베트콩을 발견하면 근접전을 시도하여 직접 육박전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베트콩을 생포 또는 심벌하였으며 야간에 실시하는 베트콩 수색정찰에도 특히 능숙하여 많은 成果를 올리기도 하였다.

越南駐屯 美軍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웨스트모일랜드」將軍도 월남전 終戰後 집필 발행한 그의 저서(A Soldier Report)에서 韓國軍의 탁월한 전투능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韓國軍은 수색·정찰에 특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베트콩이 잠복해 있으리라 생각되는 수상한 촌락을 발견하게 되면, 우선 촌락內의 모든 사람들을 동네밖에 집합시켜 두고 촌락안에 들어가 베트콩이 사용했던 무기화 탄약을 수색한 다음 해당 집의 부녀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남편이나 자식들로 하여금 항복·투항하도록 유도했고, 越南政府에서 마련

한 수용소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보내주는 작전에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곤 하였다.』

특히 韓國 國內에서는 월남전에서 보인 韓國軍의 협력戰果에 많은 보도가 있었으므로 한국국민들은 월남전 참전기간동안 새로이 애국심에 대한 자성도 일어 나게 되었고, 변화해 가는 국제 정세하에서 한국의 존재에 대한 자각도 생겨 더욱 더 국민적 단결심에 입각한 국위선양에 힘쓰게 되었고 새로운 한국국력의 인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고조되기에까지 이르렀다.

六、結 論

韓國이 越南戰에 참전하게 된 동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韓・美關係라는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즉 韓國은 友邦同盟國인 美國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함으로써 韓國防衛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韓・美防衛體制의 강화를 시도했고, 따라서 韓國에 대한 美國의 방위자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곧 월남참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韓國軍의 越南參戰이 전투임무를 포함, 규모가 커지면서 월남참전에 관련되어 상당한 經濟的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 면에서도 한국의 經濟發展이라는 차원과 함께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되었

으며, 월남전 참전이라는 歷史的 경험은 결국 韓國國民에게 經濟・軍事的인 면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되어 있던 것이다.

韓國軍은 월남참전을 통해서 現代戰에 實戰經驗을 할 수 있게 되어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고, 政治的으로는 國內 정치세력의 안정과 국가적 단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며, 經濟的으로는 경제발전 추진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어 제2차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목표성장을 크게 부상시키는 기록을 냈을 뿐만이 아니라 外交面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과거의 신흥국 상태에서 벗어나 제발로 설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文化 및 精神面에서는 월남전 참전경험이 韓國國民들로 하여금 국민정신의 함양 및 애국심 고양에 긍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韓國國民들은 자신들의 國家와 國民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신념, 새로운 자각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고 차후 계속된 국제 경제체제하에서의 수출伸張과 中東地域에서의 건설산업 확대라는 면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어 적극성을 띠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現代 韓國歷史에 획기적인 章을 이룩한 越南參戰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韓國의 國力伸張에 비약적인 도약을 가능하게 한 韓國外交事例로써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